

작품 내용

제 목	미완성
내 용	마지막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. 잉크가 마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추었기 때문이다. 수없이 고쳐 쓴 밤과 닿아버린 연필 끝은 누군가의 한 번의 복사 앞에서 너무 쉽게 잊혔다. 이름 없는 작품은 박수 속에서도 외로웠고, 창작자는 다시 빈 종이 앞에 서기를 망설였다. 사람들은 한 편의 시가 미완성이라 말했지만, 끝내 완성되지 못한 것은 한 작품이 아니라 창작을 믿게 하는 존중이었다.